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

로마서

1 장

1-2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특명을 받고, 이 사명에 헌신한 예수님의 노예(slave)입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미션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이기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들인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7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의 '1 차 보고서'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혈통은 역사적 실존인물인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성령님께서 입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우리 주님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①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도 받았지만, ②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그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도록 돕는 **긴급명령**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8-12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들이 들려온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희소식-"메시지"-을 전할 때에, 내가 너무 사랑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 사실은 늘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속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리움도 더욱더 사무치는 법.... 어서 속히 여러분을 만나, 직접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게 받기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게 많은 만큼, 여러분도 내게 많은 걸 줄 수 있답니다!

13-15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동안 비유대인(이방인) 지역에서 흥왕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걸 난 정말이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꼭 뭔가 일이 생겨, 로마에 갈 수 없었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예의 바른 사람이건, 무례한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단순무식한 사람이건(그건 전혀 중요치가 않죠)-이 서로 의존적인 존재인 만큼, 서로에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역자 주) 생각해요. 결론은,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도 하루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희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16-17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됐지만, 이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계획의 '메시지'-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하시겠다는-야말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전하는 뉴스랍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시던 말씀-'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기필코 살 것이다!'-이 드디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바로세워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18-23 사람들은 진실(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역자 주)을 자꾸 은폐하려 하면서, 대놓고 불신, 악행,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함에 대한 신비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지 않고, 예배하길 거부하면, 점점 더 어리석음과 혼돈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게 되죠. 그들은 인생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척 으스스대지만, 사실은 일지무식이죠. 그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길거리 노점상에서 파는 싸구려 조각상(우상-역자 주)과 바꿔 버렸어요.

24-25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네가 나 대신 정 그걸(우상을) 원한다면, 그걸 가질 수밖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사는 곳은 돼지우리로 변했고, 그들은 그 안에서 온갖 악취에 찌들어, 겉과 속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가짜 신을 바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들은 자기를 만들어 주신 참 하나님 대신, 가짜 신(우상)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송축하기에 합당한 분이죠. 오, 예~!

26-27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법까지 잊어버렸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것조차 잊은 채, '성(性)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사랑이 아닌 욕정으로 서로 학대하고 더럽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도 잃어버린 채, 사악하고 무정한, '괴물'들이 돼 버린 거죠.

28-32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맘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지옥문이 열리고 만 거예요. 세상엔 악이 들끓고,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손에 쥐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친구의 등에 칼을 꼽는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시기, 질투, 묻지마 살인, 다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독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하면서 공격해대는지... 한번 보세요. 저 역겨운 불량배들, 허풍쟁이들, 뒷담화꾼들을 한번 보라구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교활하고, 잔인한 냉혈한들이 따로 없죠. 그들이 정말 더 좋은 걸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천만에요! 너무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누가 누가 악한가?' 경연대회를 열고, 우승자들에게 상까지 준다는 거죠. 세상에~! πππ

2 장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그렇다고 만만하신 분은 아니에요.

1-2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이나 해댄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예요. 여러분도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범죄와 악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적당히 속아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막 작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요.

3-4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 댄으로써, 하나님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못 보시고, 벌을 내리실 염려가 없게 될 거라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여러분 잘못을 슬쩍 눈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완전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긴 하지만,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우리 손을 꼭 잡고 뜻밖의

‘인생역전’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론 고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역자 주)

5-8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일랑 아예 하덜덜덜 마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든 행위들은 불난 데(하나님의 심판-역자 주)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아주 매를 벌어요, 매를~!^^) 뜨거운 심판의 불길이 임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구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받게 되지만,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쉽게 쉽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구요!

9-11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엇나가면, 여러분의 출신 성분, 가정교육, 출신학교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역시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나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게 되지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합격패스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12-13 여러분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엔 하나님께서도 나름 정상참작을 해 주셨지만,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저 설교만 듣는 것은 완전 시간낭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느냐’가 아니라, ‘과연 설교대로 실천하느냐’에 있으시니까요.

14-16 하나님의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진리를 확신하고 따르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란 게, 저 우주 멀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창조되던 때부터, 이미 우리의 DNA 에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Yes’ 또는 ‘No’라는 음성이 메아리 쳐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Yes’ 또는 ‘No’라는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최종판결을 내리신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러한 차이(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못 들은 사람들의 차이-역자 주)를 다 감당한 내용이지요.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 해요.

17-24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자라났다고 해서, 유대교의 등에 편히 업혀 가리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안다는 듯 전문가 행세를 하고, 최신 교리를 줄줄 꿰고 있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말씀에 통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캄캄한 밤, 절벽길에서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지만, 정작 여러분을 안내해 줄 사람은 어디 있나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레알 심각하다구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왜 남의 돈을 감쪽같이 훔치나요? 얼마나 ‘완전범죄’인지... 누가 여러분을 의심이나 하겠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 그토록 세련되게 설교하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살살 잘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잡아 보는 것은, 다 너희 유대인들 탓이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 이건 여간해서 쉬 사라지지 않을, 케케묵은 문제인 것 같네요.

25-29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는 표식으로 받는 시술, 할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할례는 정말 훌륭한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할례를 안 받느니만 못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다름없어요. 아니, 사실 더 낫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비할례자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할례자보다 더 낫다구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진정한)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피부**에 칼로 표시를 한다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표시를 해 주셔야 비로소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 신분을 받는다고 효력(진정한 유대인 시민권-역자 주)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구요!

3장

1-2 그렇다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2-6 우선, 유대인들이 성경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고, 간수하는 책임을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무책임했던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똑같이 배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배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구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고 진실합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 같으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악행이 하나님의 선행을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도와드린 게 되니,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설사 악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손상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릴 몰아 세우시고, ‘네 악한 말에 책임져라’라고 으박지르신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정답은 “No!”입니다! 그건 완전 틀린 말이라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상이 바로잡힐 수 있겠어요?

7-8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상대적으로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라고 말한다면 그건 완전 사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께 선한 일 하실 기회를 더 많이 드리게 되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주장하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완전 중상모략이에요!

우리 모두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어요!

9-20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운이 좋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출발점이 똑같아요. 즉 우리 모두 죄인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있구나.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오,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구나.

그들의 목구멍은 넓게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비탈진 진흙길처럼 미끄럽다.

그들이 하는 말엔 다 독이 섞여 있어,

입을 열 때마다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들은 ‘올해의 최고 죄인’이라는 영예를 얻으려고 경합을 벌이고,

비통과 파괴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은 기본조차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일말의 관심도 없구나!”

이 말씀은 이방인이 아닌, 성경을 처음 받았던, 바로 우리(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쯤~금 관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 우리 역시 공범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정돈해 주세요.

21-24 하지만 이 시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는 일'로 실현됐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유대인 크리스천들-역자 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방인 크리스천들-역자 주)의 삶을 다 정리정돈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들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그들이나 다 끝없는 죄목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릴 위한 조치(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건 100% 은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선물**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난장판, 돼지우리에서 우릴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늘 원하셨던,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 주셨답니다!

25-26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세계'를 대청소하시기 위해, 이 '죄의 세계'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제물로 올려 놓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치-예수님이라는 제물을 통해, 이 세상을 대청소하시는 일-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조치로 인해,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 주신 우리 죄가 이제 완전히 사면됐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청소'는 바로 '현재 진형형'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걸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리정돈 된) 질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7-28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이슈가 되어왔던 우리의 자랑과 교만(우리가 하나님 일을 주도한다는-역자 주)은 어디로 갔나요? 무효가 됐나요? 네, 맞아요. 무효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죠?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조급하게 행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속도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조치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뭘 하려 해 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역자 주)

29-30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교만한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시 무효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비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조치를 환영하고, 그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건, 유대교에 대해 완전 문외한인 사람이건-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을 정리정돈해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31 이처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칙과 법령들을 지키려고 애써온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정돈 될 때, 하나님의 규칙과 법령들 역시 본래 의미를 되찾는답니다.

4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1-3 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 덕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게 그의 공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들은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인 걸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정리정돈해 놓으신 삶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정돈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위해 삶을 정리정돈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4-5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겠죠. 우린 그걸 월급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하지 않지요. 하지만, 일이 너무 엄청나서 그 사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면-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절대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맞아요.-'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으로 족해요-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해 주시죠. -역자 주)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6-9 다윗 역시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정돈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새로운 관점을 입증했어요.

"범죄 기록이 말끔히 지워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경찰청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전과가 지워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목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실 때, 그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사면'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대교 율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기준에 합격했던 거, 다 동의하시죠?

10-11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할례 계약서'로 표식을 받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그렇죠! 표식을 받기 전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온 삶을 걸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사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자기를 위해 완성해 놓으신 무대에 자기는 발만 올려 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증샷(아브라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세요!^^)으로 할례를 받은 것뿐이었어요. (할례는 이미 합격한 후 받은 합격통지서에 불과하죠. -역자 주)

12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꺼'라는 ID 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 놓으셨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그간 영광진창이었던 삶이 정리정돈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할례 표식을 받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다소 **모험적인 믿음**의 선택을 한 표시로(인증샷으로서) 할례(그냥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님!**)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라구요.

13-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유명한 약속-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은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혹은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다 행하겠다'고 정식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하나님의 특별사면을 얻는다면, 거기엔 상호간의 **신의**는 없고, 서로 간의 **신뢰**도 문서화된 일개 **계약서**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건 거룩한 약속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사업상의 거래일 뿐이죠. 변호사가 작성해서 깔끔하게 프린트한 사무적인 계약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단순한 약속-**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은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깰 수 없다는 뜻입니다!-역자 주)

16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신뢰하고 **얼싸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사면장-역자 주)이 **순수한 선물**로 우리에게 배송되는 거라구요. 그것이 바로 그동안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유대인-역자 주)이건,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방인-역자 주)이건 상관없이 누구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역자 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 아닌(그런 생각은 완전 시대착오적 발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17-18 아브라함이 성자(聖者)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게 아니라, 그가 보잘것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VIP 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VIP'인 그를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웠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익숙한 성경구절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조상'이란

호칭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말씀 한 마디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시는 것 등등)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담대하게 믿었을 때에 비로소, 실제로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게 절망적일 때에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기로서는 어찌 해 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죠. 그 덕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넌 엄청난 대가족을 갖게 될 거야!”

19-25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적(性的) 무능력'에 집중하여, '다 끝났어. 백 살이나 된 이 몸으로 아이를 하나라도 낳을 수 있겠냐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사라가 수십 년간 겪어온 '불임증'을 진찰한 후, '도저히 안 되겠군....'이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의구심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간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뛰어들어,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격통지를 받았다!**'라고 기록된 거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상황종료'로 여겨지던 절망의 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열싸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합격통지, 사면장, 즉 구원-역자 주)을 받게 된답니다. 제물로 드러진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께 합격통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곁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5 장

인내심 훈련

1-2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셨던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릴 바로세우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경지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우릴 향해 더 활짝 열어 놓으신 문(그동안 미처 못 봤던)을 새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바라던 그 자리-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외쳐 부르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3-5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고난에 짓눌려 있다 해도, 찬양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고난이 인내심을 어떻게 키워 주는지, 인내심이 무쇠를 연마하듯 인격을 어떻게 단련시켜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고난을 당해도-역자 주) 결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부어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을 다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6-8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적시(適時)에, 딱~ 시간 맞춰서 도착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맥 놓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반항적이고, 여전히 부적격자였을 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가 설사 그리 부족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우린 (구원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죠. 사람이 착하고 고귀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때, 당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목숨 거신 거라구요!

9-11 이러한 희생적 죽음-‘완전한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릴 당신 곁에 바로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不和)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 사라지죠.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해를 해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회복된 지금, 하나님 아들의 부활생명으로 인해, 우리 생명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구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놀라운 우정을 쌓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어찌 시덥잖게 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오고, 경배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죄, 그리고 생명을 주는 선물

12-14 우리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딜레마에, 처음 아담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잘 아시죠? 그는 최초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어느 누구도 죄나 죽음이라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죄로 인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글자 한 글자,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도 없었죠. 하지만 모세의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거대한 심연-죽음-이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지배해 왔음을 알게 되었죠. 설사 여러분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류는 누구나 **'삶의 종말'**,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릴 이 딜레마로 몰아넣었던 아담이, 우릴 이 딜레마로부터 구조해 줄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네요!

15-17 이 '구조(救助)의 선물'을 '죽음을 담보로 하는 죄'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벼랑끝-**하나님과의 분리**-으로 내몰았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는지 상상이 되세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죄'와 '생명을 주는 선물'은 정말이지 '비교불가'입니다! 그 최초의 죄에 대해서는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 그 이후 계속된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생명(특별사면-역자 주)'이라는 놀라운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이 위세를 떨치던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회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어진 이 풍성한 생명의 선물(모든 것을 바로세우는 이 대대적인 정리정돈 작업)을 두 손을 내밀어 꼭 붙잡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준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18-19 (어려우세요? 그렇담...^^) 한 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밑줄 짝~ ★표 5 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에 갇혀 버렸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이걸 바로잡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조해 줬단 말입니다! 그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조해 준 정도가 아니고, 우릴 생명의 세계로 속 집어넣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No'라고 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 'Yes'라고 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복귀시켰다구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ㅠㅠ 나머지 공부!^^)

20-21 **율법**이 죄를 대항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율법**이 한 거라고는, 더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해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적극적인 용서**와 맞장플 생각을 꿈에도 못한답니다. 만약 죄와 은혜가 결투를 벌인다면, 은혜가 압승을 거두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죄는 기껏해야 죽음으로 우릴 위협하는 게 다예요. 그래 봤자 이미 '게임 끝'이죠. 왜냐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 후, 생명-끝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종말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초대장이기 때문이지요!

6 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1-3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릴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 (선심 쓰는 차원에서^^)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죠! **죄가 통치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여전히 그 나라 영토에 있는 옛 집에서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삿짐을 챙겨서 영원히 그 나라를 떠나, 이미 (은혜의 나라로-역자 주) 이민 왔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새 이민 온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 주소지인 죄의 나라를 떠나면서 '전출신고'를 끝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 속에서 나올 때, 우린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한 거라구요!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랍니다~!

3-5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의 의미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매장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릴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빛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해 주신 거예요!

6-11 이제 확실히 알겠죠? 우리의 옛 생활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가 갑질하는 처참한 삶(우리 모두의 흑역사^^)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조종당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세례에도 동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이제 죽음은 끝장났다~!'라는 신호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결론=죽음'이란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는 여러분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미 '사장된 언어(死語-고조선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죠.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협박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답니다!-역자 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국어(현대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의미있는 소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역자 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12-14 그래서 여러분은 죄라는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분을 통치해 달라고 투표를 해서는 안 돼요. 그 후보와는 인사나 악수조차 나눠서도 안 돼요. 옛날처럼,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절대 안 된다구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쏟으세요. 여러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더이상 예전의 군부독재(^^) 치하에 사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유국가에서 사는 거라구요!

진정한 자유란?

15-18 '우리가 죄라는 군부독재 치하에서 구조되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처럼 뭐든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충동대로 뭐든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천만예요!! 여러분은 소위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자신을 죄에게 맡긴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속박되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역자 주)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은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새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새 주인'의 법령은 **그분의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맘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답니다!

19 나도 지금 이 자유의 언어(죄가 아닌, 하나님이 구사하시는 언어-역자 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로만 소통 가능하기 때문이죠. (죄의 언어는 이미 사장됐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죠?-역자 주) 여러분이 전에,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는 전혀 신경도 안 쓴 채, 맘에 내키는 대로 '막 살수록', 여러분의 삶은 악화일로였죠. 자유 역시 점점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 받고, 점점 더 거룩해지니, 이 얼마나 '클래스가 다른' 삶입니까?

20-21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때는 '무엇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행동인지, 대관절 무엇이 옳은 건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삶에 무슨 유익이 있죠? 그런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런 삶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나요? 바로 벼랑 끝, 사지(死地)로 인도하지요.

22-23 하지만 이제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기쁨을 알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온전히 치유된, 아름답게 정리정돈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죄를 위해 평생 몸바쳐 일해 봤자, (노후에) 여러분이 타게 될 연금은 '죽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배송해 주신, 진정한 삶, 영원한 삶입니다!

7 장

진퇴양난

1-3 여러분은 율법에 관해서라면 박사들이니,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 보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과 법적 혼인관계로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 구속력에서 해방되지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산다면, 그건 명백한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이라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누구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남자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지요.

4-6 친구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율법이 지배하는 삶'을 같이 가지고 가셔서 무덤에 파묻은 후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삶'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자녀를 낳을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전처럼 우리 맘대로 막 살았을 땐, 법조항의 아내가 되어, 죄에게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럴수록 우리 점점 더 반항을 해댔구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자녀를 '유산(流産)'하거나 '사산(死産)'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횡포에 맥없이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 포악한 법조항들과, 뻑뻑한 계약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7 이쯤에서 '법조항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죄보다 나을 게 없겠네요?'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네요. 그건 결코 아니지요. 법조항도 나름 완전한 합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은 삶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묘연해질 수밖에 없죠. '탐심을 품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이 무슨 미덕인 양 멋지게 걸치고 다니면서, 그로 인해 내 삶을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8-12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난 확실히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법조항은 멋지고 훌륭한 작품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죄의 유혹으로 계명이 왜곡되고, 결국 '금단의 열매'까지 만들어졌지요. (사람들은 원래 관심도 없던 일에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더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역자 주) 법조항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유혹해 왔어요. 세세한 법조항들이 없었더라면, 죄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나는 죄에 대해 별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죄가 법조항을 화려한 액세서리로 둔갑시켜, 내가 거기에 낚여, 그걸 걸치고 다니다가, 결국 그것에 발목 잡히고 만 거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마땅한 계명이, 오히려 교묘하게 날 속여서, K.O. 시켜 버렸다구요. 죄는 팔팔하게 날뛰는데, 나는 실신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원래 법조항 자체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주신, 인류의 '일반상식'이에요. 본래는 모든 계명이 다 건전하고 거룩하지요.

13 이쯤에서 다음 질문으로 뭐가 나올지 알 것 같네요. '그럼 그 선하다는 율법도 믿을 만하게 못 되네요? 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악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려 했죠? 이에 대한 대답 역시 'No'예요! 죄는 늘 자신의 악명 높은 기술을 사용하죠. 즉, 선한 것 속에 숨어들어가, 교묘히 위장한 후,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도록 유혹해요.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 속에 숨어들어가면, 자기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패악을 저지른답니다.

14-16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을 다 꿰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영적인데, 난 그렇지 못해요. 바울 선생님도 이런 갈등을 겪지 않나요?" 네, 그래요. 이전에 난 내 맘대로 살면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난 분명 이 길로 가겠다고 마음먹는데, 내가 혐오하는 짓들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도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하고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필요한 거죠.

17-20 하지만 율법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해요. 내가 율법에 도통했더라도,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내가 선한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내게 꼭 필요한 것-선한 뜻-을 마음에 품어도,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실제 행하지는 못하죠. 악한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은 하고 말죠. 내 행동이 내 결심대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매번 난 그렇게 패배하고 마니까요.

21-23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뻔할 뻔자죠.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죄가 바로 나를 낚아채 버리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100% 다 계명을 기뻐하는 건 아니예요.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은근히 반항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결국 날 압도해 버리고 마는 걸요.

24 나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역자 주) 별의 별 짓을 다 해 봤지만, 그 어느 것도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누구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요?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죠?

25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릴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죄에 끌려 다니며 완전 딴짓을 하는, 그 모순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8 장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1-2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지구 착륙과 함께, 그 숙명적인 딜레마가 마침내 해결됐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입성한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먹구름이 낀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새로운 파워가 작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역대급 태풍으로 그 먹구름을 다 날려 버리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손아귀-그 무자비한 독재정권-아래,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여러분을 사면시켜 주신 거예요.

3-4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재정권의 급소를 공격, 치명타를 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인간들이 발버둥치며 사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 친히 들어오셔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단번에,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애당초 우리는 인간성의 파괴로, 도저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율법으로는 이러한 '아수라장

대청소'를 절대 못해냈던 거예요. 율법은 죄라는 병에 대해, 근본 치료를 해주는 대신, 그저 대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냈죠. 그동안 지켜보겠다고 기를 썼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 대신, 우리 안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그저 끌어안기만 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5-8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본인의 '도덕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막상 그 '도덕근육'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계셔서,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율법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에 부딪쳐 도무지 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은 넓게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이처럼 극과 극의 차이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9-11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 들여 숙소를 내드렸다면, 그때부터는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요. 확실히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문전박대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뭘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그분이 자신 안에 사시도록 환대해 드린 여러분은-비록 죄로 인한 한계들을 여전히 경험하긴 하지만-하나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사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지 않겠어요? 즉, 여러분을 살려내어 당신께 인도하시지 않겠냐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셨듯이, 여러분 안에서도 정말 살아 숨쉬고 계시답니다!) 그동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여러분은 이미 구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의 영에 의해, 여러분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거라구요!

12-14 그러니 이제,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 했던, 과거의 삶에서는 한 푼도 건질 게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은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개나 물어가라고 하세요!^^) 그런 건 땅에 매장한 후(장례식이나 잘 치러주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손짓해 부르고 계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시죠.

15-17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묘지나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빠, 이번엔 또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어린아이처럼,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반기는 그런 모험적인, 생동감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져 주시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상상도 못했던 '찬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장차 그분과 함께 복락도 누리게 될 거예요!

18-21 그래서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복락과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아직은 고삐에 묶여 있지요. 이들이 고삐에서 해방되어, 함께 '영광의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설레임과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 가지요.

22-25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마치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같아요. 현재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임산부가 겪는 해산의 고통 같고요.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 주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릴 일깨우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 산통을 겪는 거예요. 한때 불임증에 걸렸던 우리 몸이 이제 출산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임산부가 출산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소망이 점점 더 커지지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대에 찬 소망과 설레임은 점점 더 커져간답니다.

26-28 그때까지, 우리가 때로 기다리다 지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라도,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릴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탄식만 나올 때, 아픔이 너무 커 신음소리만 나올 때조차, 성령님께서는 그걸 기도로 바꾸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산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우릴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이(그게 극심한 산통일지라도-역자 주) 결국에는 좋은 열매(순산-역자 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29-30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당신 아들의 삶과 똑같이 만들기로 결심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세요. 우리가 창조될 때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이상적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품격을 결정하신 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신 후, 자녀들을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자녀들을 세워주신 후, 끝까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셨어요. (우린 이런 단계를 거쳐 우리의 이상적 모습, 목표 품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역자 주)

31-39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과연 패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폭탄(우리의 '난장판 인생')을 끌어안으심으로써, 스스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실 정도로, 우릴 위해 모든 걸 주저함 없이 다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기꺼이, 공짜로 주시지 못할 게 있을까요? 또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감히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릴 변호하고 계시는데, 우릴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문제, 고난, 증오, 굶주림, 노숙자 생활, 폭행, 협박, 배신(뒤통수 치기) 등,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우릴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기에, 우리까지 냉혹하게 죽입니다.

우린 무방비 상태로 그저 당합니다.

그들이 우릴 하나씩 차례대로 처치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릴 두렵게 만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의 것이든, 악마의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사고능력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고 나는 절대 절대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릴 꼭 껴안고 계시기 때문이죠.

9 장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1-5 그런데도 늘 큰 슬픔이 날 짓누르고 있네요. 마치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혀져 있는 듯,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제 증인이세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저주를 받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장 그렇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가족이에요. 난 그 안에서 성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영광, 하나님과의 언약, 계시, 예배, 약속 등 모든 걸 다 가졌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낸 민족이기도 하지요! 오, 예~!

6-9 그렇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건가?’라는 의심은 추호도 품지 마세요. 문제의 발단은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문제는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 정신을 가졌던 건 아니다’라는 데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정자(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된 거였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성행위를 통한 ‘인종적 특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년 이맘 때쯤 다시 올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 기억나시죠?

10-13 그런데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리브가에게도 역시 유전적 요인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게 바로 '약속'이었어요. 리브가가 우리 선조 이삭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중의 아기들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선행이든, 악행이든 행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증을 얻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뭘 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네 쌍둥이 아들 중 형이 서열 2 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중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확실히 뜻을 박으셨잖아요?

14-18 이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푸념할 건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도 '자비도 내가 베푸는 거고, 공휼도 내가 베푸는 거란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요. 공휼은 본래 우리 동정심이나 도덕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번에 내가 '나의 구원 능력'을 주제로 드라마를 찍는데, 널 단역 배우로 캐스팅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말씀이에요. 좋은 역이건, 악역이건 하나님의 '큐 싸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죠.

19 이에 대해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릴 비난하실 수 없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큰 결정들을 다 해 놓으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죠.

20-33 세상에!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지요? 우리 중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할 만큼 지혜롭단 말인가요? 진흙이 자기를 빚은 손가락에게 '왜 날 이 꼴로 빚은 거죠?'라고 불평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진흙을 가지고 꽃을 꽃는 화병을 만들든, 찌개를 끓이는 냄비를 만들든, 다 토기장이 마음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도자기는 당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어떤 도자기는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정교하게 만드신다 해도, 어떻게 그걸 문제삼을 수 있겠어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호세아도 이렇게 기록했지요.

“내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nobody)’을 불러내어 ‘대단한 사람(somebody)’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어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너 따위가...?”라고 구박하는 대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제분이시군요!’라며 네 앞에서 찢절매게 될 것이다.”

이사야도 이렇게 똑같이 강조했어요.

“만약 바닷가 모래알에 하나하나 다 번호를 붙인 후,

그 모든 모래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번호일 뿐, 이름이 아니지요.

구원은 하나하나 선택받음으로써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호를 매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한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숫자 세기’에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이사야는 하늘을 우리러보며, 또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어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유령도시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삶을 바로세워 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탁상공론하는 데 그토록 열을 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바로세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말았죠.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에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 프로젝트’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자기 눈앞의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라구요. 길 한복판에 큰 바위로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바위에 걸려

넘어졌고, '큰 대(大)자'로 뺏어버렸답니다. 이사야(오늘 자주 등장하네요^^)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은유로 표현했지요.

“경고!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 둬!”

너희는 그 돌을 피해 우회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돌이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길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역자 주)

10 장

종교인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1-3 친구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그건 바로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내 온 맘 다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예요. 유대인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관련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역주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여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업무(구원)가 **하나님**의 사업-그것도 현재 가장 뜨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업장 바로 건너편에 자기네 '구원가게'를 열고 요란하게 호객행위를 하면서 자기네 물건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약조건에 따라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맘대로 거래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 결국 장사는 공친 거죠.

4-10 이전에 보여주신 계시(啓示)는 '**메시야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메시야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바로잡아 정리정돈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법전은 결국... '법조항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님'을 입증할 뿐이었어요. 뼈곡히 씌어진 법전에 따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일일이 제재를 받는다는

건 정말 숨막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삶을 멋지게 빛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청빙하겠다'고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메시아를 구출해 오겠다'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얘기한 것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구원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네 입 속의 허처럼, 네 가슴 속 심장처럼,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다!"

'구원하시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친히 바로잡아 정리정돈해 주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환영인사를 건네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게요! 어서 오세요!'라는 환영인사를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온 몸과 영혼으로 끌어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은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예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열싸안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정리정돈해 주셨어요!'라고 말해요.

11-13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네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라고요. 이건 종교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쳐라! 그럼 누구나 도움을 받을 것이다!"

14-17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들어본 적도 없다면,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애길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런 애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이런 애길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거랍니다.

"숨막히는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전하는 전령(傳令)들의 웅장한 행렬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역시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해볼 법한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 누구도 전혀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지 않는 한, 들을 게 없을 테니까요.

18-21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런 내용을 듣고 깨달을 기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았죠. 여기에서 ‘수없이’란 말을 굳이 강조하고 싶네요.

“전도자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구나.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목소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에 대해 자기네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모세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예언했죠. (모세의 출연 횟수도 만만치 않네요,^^)

“너희가 하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것을 보면,

너희는 미치도록 질투할 것이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것을 보면,

너희는 노발대발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오늘 정말 이사야가 단골 손님이네요,^^)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환영했다.

그동안 날 한번도 찾은 적 없던 사람들이....

나 역시 사람들을 알아보고 환영했다.

그동안 나에 대해 한번도 질문조차 한 적 없던 사람들을....”

이사야는 이어서 엄중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지만 나의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은 이스라엘의 무시와 냉소뿐이었다.”

11 장

소수의 충성된 심복들(The loyal minority)

1-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리셔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 편지를 쓰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랍니다. 나만큼 뺏속까지 유대인인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린 ‘하나님의 거절’ 애길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고,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셨기에 쉽게 손을 떼실 수가 없으세요.

2-6 엘리야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버렸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 버렸다구요.

오로지 나 혼자만 남았어요. 게다가 저들이 날 쫓아오네요!” (후덜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아직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자들 7천명이 남아 있단다.

끝까지 충성을 다할 나의 심복들 7천명이 남아 있단 말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무서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심복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들은 떡고물에는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확신하기 때문에 애써 버티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욕심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면, 벌써 오래 전에 하나님을 떠났겠지요.

7-10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인증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감각해졌어요.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스라엘)의 다툼과 이기심에 질리셔서,
그들 눈을 흐리게 하셨고, 그들 귀를 어둡게 하셨다.
그들은 ‘거울의 방’ 안에 갇혀, 자기 모습에만 빠진 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다윗 역시 같은 문제로 고심했어요.

“자기 뱃속만 채우는 위장에 탈이 나길!
자기 잇속만 차리려 달려가는 다리는 부러지길!
거울 속 자기 모습에만 빠져 있는 눈은 멀어 버리길!
스스로 ‘신(神) 놀이’에 빠져 있는 자들은 속병이 나길!”

가지치기와 접붙이기(Pruning and Grafting branches)

11-12 그럼 이번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나?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건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님’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열어뒀답니다. 그래서 그 문 안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뒤늦게 ‘우리가 혹시 좋은 걸 놓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온세계 비유대인 외부인들이 몰려와 들어올 수 있었지요. 그러니 하물며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얼마나 굉장한 귀성행렬일까요?

13-15 하지만 난 여기에서 유대인들 애길 계속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내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외부인(이방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소위 ‘외부인들’에 대한 소명을 받았거든요. 나는 가급적 이스라엘 친족들, 소위 ‘내부인들’ 사이에 거하면서 최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나는 내 이스라엘 친족들이 자기들이 놓친 게 뭔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길 바라요. 그들이 문을 나감으로써, 그 문으로 전세계인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역대급

귀향행렬-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하던 일을 그르쳤는데도,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구요?

16-18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와 바탕에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시는 거룩한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의 원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열매 또한 거룩한 법! 그런데 그 나무 일부가 가지치기를 당하고, 여러분(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이 접붙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풍성하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먹고 있는 거지요. 원래 있다가 잘려 나간 가지들에게 여러분이 뽐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리에 영양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양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9-20 그럼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날** 접붙이기 위해,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 당 한 거였구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지들이 믿음과 헌신으로 뿌리와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한 채, 말라비틀어졌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임 되어, 믿음이라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뿌리와 연결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은 금물~! 여러분을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게 지켜주는 뿌리에게 늘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21-22 만약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를 가차 없이 쳐내셨다면, 하물며 여러분에 대해 주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유사시에 아마 단호하게 쳐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함과 엄격함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라 죽은 가지는 엄격하게 쳐내시고, 새로 접붙이기한 가지는 친절하게 대해 주신답니다. 그렇다고 이 친절만 믿고 까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시 말라 죽는 순간, 가차 없이 가지치기를 당할 테니까요.

23-24 그리고 가지치기 당해 땅에 버려진 가지들을 깔보고 잘난 척해서도 안 돼요. 그들도 ‘더 이상 죽은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언제든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접붙이기’의 달인이시니까요. 야생 나무에서 잘라온 가지인 여러분을 과수원 나무에 접붙이기 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원가지를 다시 제자리에 접붙이기 하시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무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다른 가지들도 잘되기를 소망하세요.

완전한 이스라엘

25-29 친구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둘 게 있어요. 좀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는 왕족, 유대인들은 영원히 내쳐진 천민'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일부 이스라엘 '내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일시적이**거든요. '외부인들'을 향한 문호개방은, 우리 '내부인들'의 귀향으로 집이 가득 차는 순간, 유효기간이 만료된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완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죠.

“시온산에서 한 챔피언(구원자-역자 주)이 당당하게 내려와서, 야곱의 집을 청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꼭 할 일, 그것은 그들 죄를 없애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그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죽마고우(竹馬故友)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과 선물에 확실한 보증서를 첨부하셨어요. 즉,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선물을 압수하는 법이 결코 없으시답니다.

30-3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문 밖에 있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놔뒀기에, 여러분에게도 그 문이 개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문 밖에 있고, 여러분들이 문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저런 형편으로, 다 한번씩은 문 밖에 처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33-36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깊고 깊은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구요? 이건 정말 '상상불가'의 일이죠.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지시를 내릴 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구요?

하나님께 선의를 베풀어, 조언을 해 드릴 사람,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통해 행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지요.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찬송을!
아멘, 아멘, 아멘!”

12 장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1-2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취침, 식사, 일, 산책 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문화에 이미 익숙해졌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시선고정!!!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즉각 반응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주변 문화는 항상 여러분을 퇴보시켜,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의 최선의 것을 발굴하셔서, 잘 빚어진 완숙함으로 품격을 화악~ 올려주신답니다.

3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에 대해 받은 사명으로 인해 감사한답니다. 그런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모두 오직 은혜로 살고 있지요. 그러니 **본인이** 마치 하나님께 뭐 꽤 좋은 걸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뭘 해 주시는가?'를 근거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6 우리를 인체기관에 비유해 보죠. 인체의 각 기관은 함께 연합되어 유기체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존재의미를 갖게 되지요. 각각 떨어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선택 받은 자들이 연합된 유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각 기관으로 연합될 때, 각자의 존재의미를 갖고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멋지게 연합되어 놀랍게 기능하는 그리스도 몸에 소속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창조 목적과 다른 모습이 되려고 애쓰지 말자구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각자의 기능을 힘껏 발휘하자구요!

6-8 여러분, 설교할 땐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세요. 다른 엉뚱한 소리 말고요. 누구 도와줄 땐 그냥 도와주세요.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누구 가르칠 땐 가르침에만 전념하세요. 누구 격려하고 멘토링할 땐 상대를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책임자의 직분을 맡았을 땐 갑질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땐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즉각 응답하세요. 사회 약자층과 일을 할 땐, 짜증내거나 귀찮아하지 마세요. 항상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을 대하세요.

9-10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악에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세요. 대신 선에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기꺼이 '제 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세요.

11-13 기진맥진 살지 마세요. 자신에게 늘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세요. 주님의 센스 있는 종이 되세요.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난한 크리스천들을 도와주세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손님대접을 해 보세요.

14-16 원수를 축복하세요. 저주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며 웃어 주세요. 친구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주세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내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왕따들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남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맨이 되려 하지 마세요. (관중-관심중자-는 금물!^^)

17-19 보복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아보세요. 자신을 이해하듯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이 좋게 지내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21 성경은 우리에게 '네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 줘라. 네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음료수를 사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원수가 아마 깜짝 놀라겠죠? (원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사세요!) 악에게 제압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제압하세요.

13 장

모범시민

1-3 모범시민이 되세요.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은 다 하나님의 질서지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국민으로서 무책임한 건 곧 하나님께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원래 정당한 권위라도, 여러분이 뭔가 켜기는 게 있을 때엔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지요. 하지만 모범시민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3-5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그럼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정부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주의하세요. 경찰은 제복이나 입고 그저 품만 잡는 핫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유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6-7 그래서 세금도 정직하게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역시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죠. 국민의 의무를 다 이행하세요. 세금이나 범칙금도 다 정직하게 내세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세요.

8-10 서로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빛이 아니라면, 빛을 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거예요. '남의 배우자와 바람 피우지 말아라',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등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하지 말아라'라는 법조항들을 다 합치면 결국 '네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가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모든 법조항들의 총합은 바로 **사랑**이지요!

11-14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세요. 매일의 일상에 빠져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 지쳐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밤이 어느덧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려 하네요.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세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셨던 구원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계시답니다. 우린 한치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경솔함, 방종, 나태함, 낮잠, 말다툼, 탐심 등으로 소중한 낮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세요! 허송세월하며 빈둥거리지 마세요. 그러다 어느새 최후의 시간이 닥칠 테니까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나세요!

14 장

인간관계 기술

1 자신과 관점이 다소 달라도, 믿음의 형제들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자기주장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특히 더-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들 역시 (상처도 많이 받고-역자 주)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2-4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성장환경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밥상에 올라온 음식은 뭐든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둘 다 그리스도의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인데, 서로 '뭘 먹네, 안 먹네...'

하며 비난을 일삼는다면 그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둘 다 식사에 초대하신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님 리스트에서 여러분 맘대로 누굴 지움으로써, 하나님의 파티를 훼방해서야 되겠어요? 문제 있거나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텐데요.

5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둘 다 일리가 있으니 그냥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두세요.

6-9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그날 특별히 AAA 급 쇠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기를 먹는다면,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채소를 드세요. 그리고 오이와 콩나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이 땅에 태어나 죽기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굳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답변할 책임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 역자 주) 예수님께서 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데 목숨 걸며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구요!

10-12 형제를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매 앞에서 교만하게 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언젠가 우린 다 하나님 면전의 심판 자리에 무릎 꿇는,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 비판하거나 교만하게 구는 것이 그 심판 자리에서 여러분 위치를 조금도 높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의 성경말씀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의 혀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각자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괜히 어정쩡하게 하나님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기만도 충분히 벅찰 테니까요.

13-14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하며 일일이 간섭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남들 앞길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이 굳이 훼방 놓지 않아도 그들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답니다. 모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다고 난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지요.

15-16 '누가 무엇을 먹네, 마네'의 문제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어요! 그 사람들 식단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작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음식을, 여러분이 뭐라고, 감히 영혼의 독극물로 전락시킨단 말인가요?

17-18 하나님 나라는 '뱃속에 뭘 채우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세우시고, 정리정돈해 주시고, 기쁨으로 완성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온 맘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뿐이에요. 이거야 말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일이니깐요.

19-21 그러니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구요! 격려하는 말로 세워주되, 괜히 딴지 걸지 말자구요. 설마 '밥상에 뭐가 올라왔네, 안 올라왔네...' 라고 시비를 걸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건 아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모든 음식은 선하답니다! 다만, 음식을 빌미삼아 다른 사람 흠이나 잡고, 뒷담화나 해대는 등, 음식을 악하게 사용할 때, 음식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식탁에 앉았을 때,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즉,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해 주세요.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데 방해가 되는 음식일랑 아예 먹지도, 언급하지도 마세요.

22-23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본인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 드는 식으로, 믿음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틀린 거라구요!

15 장

1-2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해요. 자기 편리함만 추구하는 삶은 옳지 않아요. 그 좋은 믿음을 남을 섬기는데 사용해야지, 남을 밟고 일어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돌봐줘야 해요.

3-6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에 바로 뛰어들어 도와주셨지요. 성경은 이를 '내가 고난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오래 전에 기록되었지만, 바로 **우릴** 위한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흔들림 없고, 따뜻한 '1:1 상담'을 통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만드시죠. 믿음직스러우시고, 변함없으시며, 따뜻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끼리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시길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린 우리 목소리에, 우리 삶까지 같이 어우러진, 기가 막힌 찬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가 될 거예요.

7-13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두 팔 벌려 받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먼저 우리 선조들에게 특별히 손을 내미셔서, 그들과의 약속을 준행하셨어요. 그 결과 비유대인 '외부인들'도 더불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안에서 성취될 모든 성경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씀요.

"그때 나는 '외부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지요.

"외부인들아, 그리고 내부인들아! 함께 기뻐하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인종, 모든 민족들아, 진심으로 찬양하여라!”

이사야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있어,

땅을 뚫고 나와 키 큰 나무로 자라난다.

어디에 있는 어느 누구든, 다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난다!”

오,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과 평화로, 성령님의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소망으로 차고 넘치길~!

14-16 나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열정이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고, 서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데에도 상당히 유능하지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다소 직설적으로 좀 ‘세계’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한 걸로 오해하지는 말아 주세요. 절대 여러분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에 ‘올인’해서, 내가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님께서 비유대인 ‘외부인들’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러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얘길 하고 싶은 거라구요!

17-21 그동안 날 통해 이루어진 일들과, 내가 지켜본 일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회고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요! 물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요. -역자 주) 여기에서 내가 겪은 모험담을 길게 늘어놓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너무나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실존하시는, 내 안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로 인해, ‘외부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부터 그리스 북서부 전역에 걸쳐,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개척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이건 정말이지, 선구자적 사역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예수님을 전혀 예배하지도 않았던 지역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내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금시초문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2-24 내가 오랫동안 로마의 여러분에게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구자적 사역을 할 게 없기에, 그리고 지난 수년간 여러분 만나기를 고대해 왔기에, 이제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께 들러 즐거운 만남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기도와 환송을 받으며 떠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25-29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스(마케도니아로부터 남부 아가야까지)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게 맞는 일이지요. 그리스 사람들도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풍성하게 흘러나온 모든 영적 은사들을 받았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궁핍함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이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일-이 '과일 바구니(구제헌금)'를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일-을 마치자마자, 나는 바로 스페인으로 떠 거예요. 그 길에 로마에 들러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요.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되면 좋겠네요.

30-33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게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그리고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사랑을 통해, 유대 지역 불신자들의 사자굴에서 날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줄 구제헌금을 통해, 헌금한 사람들의 마음 역시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오, 예~!

16 장

1-2 우리 친구 뱌뱌를 꼭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하기로 유명한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기 바라요. 나는 뱌뱌와 그녀의 사역을 진심으로

지지한답니다.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의 중요한 대표 인물이에요. 뵈뵈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뵈뵈는, 뭐든 응당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3-5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 부부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나와 긴밀하게 동역해 왔답니다. 이 부부는 전에 날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쁜만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유대인 성도들도 다 이 부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지요.

6 마리아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일꾼이랍니다!

7 내 사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감빵 룸메이트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나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둘 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랍니다.

8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내 절친 암블리아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9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한 우리 동역자 우르바노와, 내 절친 스다구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10 아벨레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검증된 베테랑이랍니다.

아리스도볼로 가족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11 내 사촌 헤로디온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나깃수 집안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12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부지런한 여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이자, 열정적인 일꾼인 버시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13 루포-주님이 정말 잘 뽑으셨죠!-와 그 어머니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날 대해 주셨죠.

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그리고 허마와 그 가족들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15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우와~! 사도 바울의 인맥, 정말 장난 아님! ^^)

16 서로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17-18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동안 배운 교훈들을 조각내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인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지요.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뭘 좀 뜯어낼 게 없나...'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지요.

19-20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난 이렇게 정직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아울러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바라요. 소위 '좋은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감언이설로 살살 꼬드기는 악의 세력에게 순진하게 당해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노라면 어느새,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 발로 짓밟아 땅바닥에 메다 콧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시면 돼요!

21 이곳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하네요.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사촌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2 지금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3 온 교회와 나를 접대해 준 가이오가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전해 달라 하네요.

시청 재무공무원 에라스도랑 우리의 절친 구아도도 안부를 전하네요.

25-2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능히 힘을 주실 단 한 분(하나님-역자 주)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선포는, 오랫동안 선지서에 신비롭게 감춰져 있었지만, 마침내 공개된 비밀이지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종일관 주관하십니다!

27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찬양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예~! 할렐루야~!